

동부하이텍 재무구조 개선 “시동”

김준기 회장, 동부인베스트먼트 설립 ... 사재 출연한 1인 주주회사

동부그룹이 동부하이텍 반도체부문 재무구조 개선에 시동을 걸었다.

동부그룹은 김준기 회장이 동부하이텍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특수목적회사인 동부인베스트먼트를 설립했다고 11월19일 발표했다.

동부인베스트먼트는 김준기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1인 주주 회사이다.

동부하이텍은 동부메탈 주식 900만주를 담보로 동부인베스트먼트로부터 1500억원을 빌려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김준기 회장은 10월 사재 3500억원을 출연해 동부메탈 지분 50%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동부하이텍 반도체 부문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동부그룹 관계자는 “출연을 약속한 나머지 2000억원도 단계적으로 재무구조 개선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1/19>